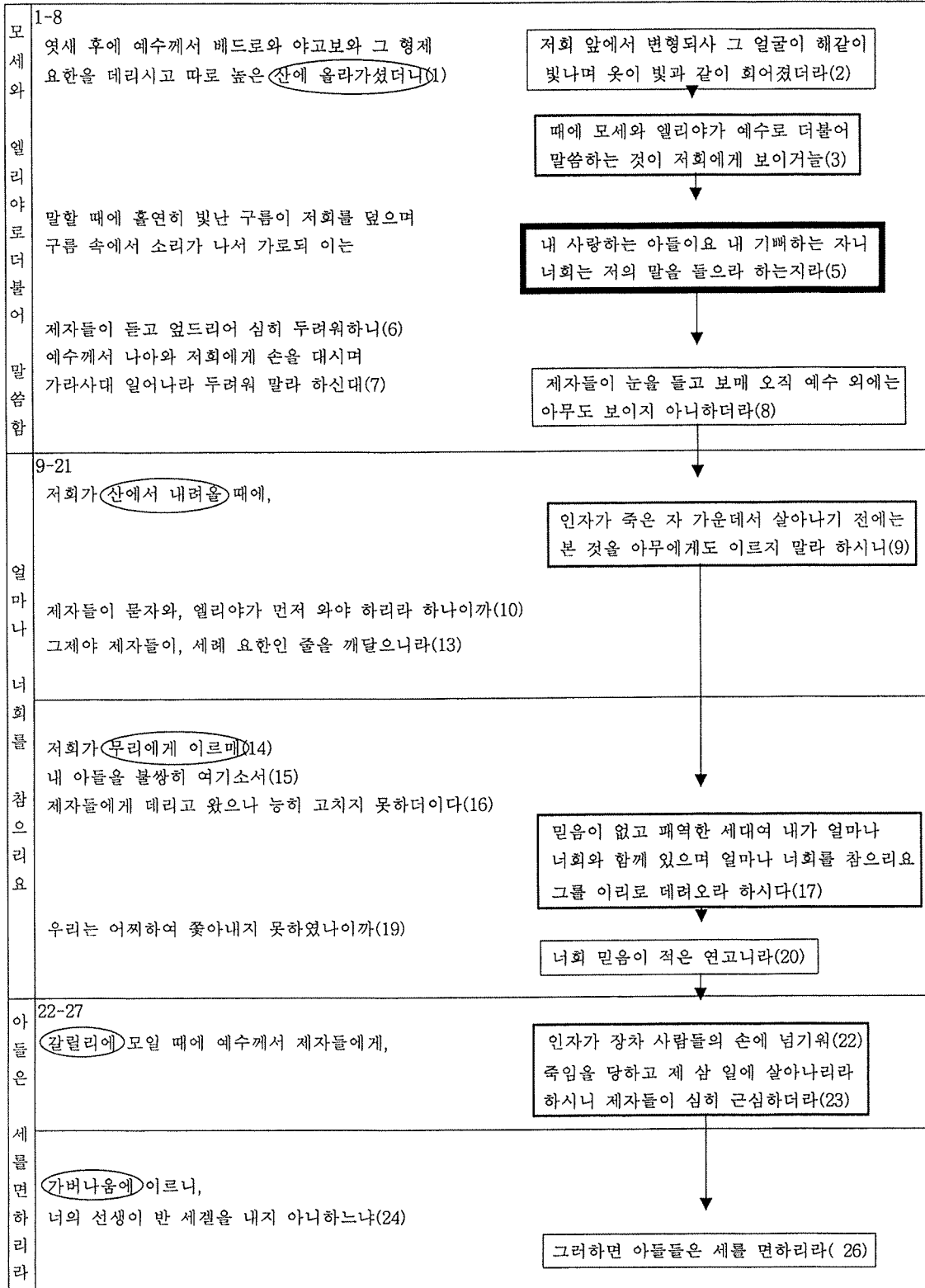


마태복음 17장 개관도표

주제 :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요절 :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17장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변화산상(1)에서 되어진 일과, “산에서 내려올 때”(9) 하신 말씀과, 산 아래(14)와, 가버나움에 이르러(24) 있었던 일 등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비로소 가르치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수난예고는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17장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의 핵심도 “변모”(變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르지 말라”(9) 하신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이르러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23) 하고, 2차 수난 예고를 하십니다. 이는 17장의 핵심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도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달려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누가복음의 병행구(並行句)에서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눅 9:31)했다고 이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형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짐”(2)을 보여주심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16:27) 하신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8)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심

둘째 단원(9-21)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셋째 단원(22-27)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첫째 단원(1-8)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심

“옛 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1).

① “옛 새 후에” 합니다. 이는 수난 예고를 한지 옛 새 후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까운 헐몬산이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대동하신 것은 저들이 훗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9, 16:20)) 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계획이 감추었던 비밀사항이었음을 드러냅니다.

② 훗날 베드로는 순교가 임박하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벧후 1:15-18)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③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3) 합니다. 이런 경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批評)하듯 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을 왜 마련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개인자격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등장하여 논의된 바가 무엇인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눅 9:31)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나하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성경의 주제가, ㉠ 그리스도를 증거(요 5:39)하는 것이요, 그 핵심이, ㉡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주실 것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④ 다시 강조합니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깨우쳐주신 방도가 무엇인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합니다. “또 이르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눅 24:44), 즉 모세와 선지자(구약성경)를 들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21)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세 제자 앞에 나타나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그림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5).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증거(3:17)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다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5하, 막 9:7, 눅 9:35)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장면을 마련하신 의도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 하리이다”(16:22) 하고 거부했던 베드로, 곧 제자 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였음을 나타냅니다.

⑥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4) 한 말에 이어서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한 말이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16:23)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⑦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8)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11:13) 하신 대로 구약시대는 지나고 신약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상의 목적만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설교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 3:1). 그런데 우리 눈앞에는, 그리고 설교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등, 인간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이, 축복이, 부귀영화가 밝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둘째 단원(9-21)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9).

① 어찌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요 7:4) 함이 옳은 것이 아니가? 상식적으로는, 5천 명 군중이 모인 가운데 “변형”하셨다면 선전효과가 극대화되었을 것이 아닌가? 주님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막 1:44)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막 3:12) 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막 5:43) 하셨으며,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고도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막 7:36) 하셨습니다.

② 왜 이렇게 경계하셨는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9) 하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힘있게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병 고침과, 5병 2어의 표적과, 변형되심과 그 외 무엇이 있다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와 결부될 때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③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9상), 9-13절까지는 하산(下山)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목격한 세 제자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성경학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10)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 4:5) 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12-13)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도 엘리야가 먼저 왔음을 증거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12하) 하심에 있음을 간파해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14상), 즉 변화산상에서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찢찢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 오라 하시니 이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17-18) 합니다. “제자들이 중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19-20) 하십니다. 이 대목의 핵심은 “믿음”(17, 20, 20)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 분이 왜 오셨는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였던 것입니다.

⑥ 주님의 말씀을 음미해보십시오. ㉠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때는 공생애 말기로

주님은 근 3년이나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주님은 “그 집 사람들”(24:45)을 저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셔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쟁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히 5:12).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셋째 단원(22-27)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22상),

①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떠나”(19:1) 유대 지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23) 하고 두 번째 수난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23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심히 근심”만 했을 뿐, 이 중대한 예고를 마음에 담아두는(눅 2:51) 자가 없었습니다.

② “가버나움에 이르니”(24상), 성전 세를 받는 자들이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24) 하고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맥락에서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 성전 세를 징수하는 법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 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출 30:12-13) 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유지비로 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여긴다면 의문(儀文)은 보고 영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③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유지비라 하시지 않고 “생명의 속전”(贖錢)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지비(維持費)를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빈부를 따라 차등을 두었을 것이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출 30:15)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속전”, 즉 생명의 가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④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출 30:12)이라는 말씀입니다. 속전을 드려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시 49:6-7)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은이나 금”(벧전 1:18)은 “생명의 속전”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딤후 2:6) 합니다. 이 규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⑤ 그런데 주님에게 “너의 선생이 반 세겔(생명의 속전)을 내지 아니하느냐”(24)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 중 핵심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26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주님 자신이 성전 주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면하리라는 뜻도 됩니다만, 주님은 것처럼 궁색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신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된 자들은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이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들었던 말인가?

⑥ 이제 도표 우측 화살표의 지시를 따라 17장을 한 눈으로 바라보면, 첫째 단원의 “변형”하신 표적도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셋째 단원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23) 하고 수난예고를 하시고, 성전 세를 통한 기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이 간접적으로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단원에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17)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를 참아주셔야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할 수 있단 말인가?